

# 광주여대 배구단·농구단 창단...대학 스포츠 요람 '비상'

배구단 최성우 감독 등 16명  
농구단 김태훈 감독 등 7명

광주여자대학교가 국내 여자 대학 스포츠 요람으로 힘찬 비상을 선언했다.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여자양궁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한 광주여대는 배구와 농구에서도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 여자대학스포츠 메카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올해 스포츠학과(학과장·김성은 체육학과 교수)를 신설하며 배구단과 농구단을 창단하게 됐다. 광주여대 배구단은 최성우 감독을 비롯해 주장 김예지, 김나현, 김민주, 김지현, 남슬비, 류은경,

박유리, 박채빈, 배은미, 손은진, 윤가은, 이재은, 진혜린, 진희정, 차예진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배구단은 지난 3월 팀을 꾸린 후 3개월 만에 첫 출전한 대학리그 데뷔전인 2023 대한항공 배 전국 대학배구 고성장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으며, 지난 20일 2023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제전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신흥 강자로 입지를 다졌다. 광주여대 농구단은 김태훈 감독을 비롯해 주장 유승화, 강경아, 이소영, 정예연, 지연수, 진설희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광주여대는 농구단 창단으로 열악한 초중고 여자농구 연계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스포츠 인재를 양성해 화려했던 여자농구 부활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다. 신생팀으로 선수층이 두껍지 못해 당장은 대회 출전이 어렵지만, 내년에 선수를 추가 영입해 본격적인 리그 경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대한민국 양궁의 새 역사를 쓴 광주여대 양궁단의 빛나는 저력과 지도자들의 헌신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시스템을 바탕으로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 모두 기량을 마음껏 펼쳐 대한민국 스포츠의 당당한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쉽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꿈을 키워가는 광주여대가 여자 대학 스포츠 육성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과 배구·농구 선수단 등이 21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체육부(배구단·농구단) 창단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 불펜 표정에 KIA 승패 달렸다

**T 타이거즈 전망대**

불펜 표정에 따라 KIA 타이거즈의 승패가 달려 있다. KIA는 10위 키움히어로즈 9위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했던 지난 주 3승 3패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올 시즌 승률은 다시 5할 아래로 내려왔고, 순위는 6위가 됐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과의 대결에서 승률 높이에 실패한 KIA는 후반기 가장 뜨거운 팀 KT 위즈 안방으로 가 원정 일정을 이어간다. 이어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다. KT는 뜨거운 질주를 이어가면서 2위에 자리했다. 8위 한화는 지난 주 무승부를 더하면서 올 시즌 가장 많은 6무를 기록하고 있다. 2위와 8위에 자리하고 있는 두 팀이지만 상대전적에서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KIA는 올 시즌 KT를 상대로 6승 1패를 기록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에는 5승 1무 6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우위를 잇고 열세를 만회해야 하는 한 주다. KIA와 KT는 올 시즌 KBO 최종 성적의 키를 쥐는 중요한 상대다. 첫 만남부터 비로 내리 3경기가 취소되는 등 올 시즌 7경기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9경기나 남겨두고 있는 만큼 시즌 마지막까지 두 팀은 순위 싸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펜 전력 극대화, 1·3루 안정화가 이번 주 KIA의 숙제다. 지난 주 KIA는 두 개의 그랜드슬램을 허용했다. 양현종이 15일 키움 김혜성에게 만루포를 맞았고, 산체스는 19일 만루 상황에서 삼성 구자욱에게 피홈런을 날렸다. 이후 공격에서 나성범과 대타 이우성이 추격을 알리는 투런포를 날렸다는 점에서도 경기 흐름은

KT 원정·한화와 홈 6연전  
뜨거운 마운드 불펜 역할 중요  
1·3루 수비 안정화도 숙제



임기영

비슷했다. 하지만 두 투수의 성적표는 달랐다. 두 명의 주자를 놓고 6회 2사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던 양현종은 두 번째 투수로 나온 김기훈의 난조 속 책임주자가 모두 홈에 들어오면서 5.2이닝 7실점의 패전 투수가 됐다. 만루포는 맞았지만 6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진 산체스는 7회 KIA가 대거 5점을 뽑은 뒤 최지민과 임기영이 남은 3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져주면서 6-5 역전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풍성해진 좌완 계투진은 KIA의 강점 중 하나도 꼽혔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펜진을 운영하면서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난 주에도 좌완 양현종에 이어 좌완 김기훈으로 이어진 마운드 운영 결과가 좋지 못했고, 스피드 보다는 컨트롤에 강점 있는 운영철과 김유신 두 좌완 투수가 연달아 삼성 타자들을 상대한 경기에서도 KIA는 2-12 대패를 당했다. KIA 타자들은 지난 주 0.327의 팀 타율을 찍으면서 뜨거운 방망이를 선보였다. 하지만 마운드도 뜨거웠다. 지난 주 6경기에서 KIA의 팀 평균자책점은 6.75까지 치솟았다. 세밀한 불펜 운영으로 마운드 온도를 낮춰야 한다. 최원준과 김도영이 지키고 있는 1·3루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 주 KIA는 7개의 실책을 남겼다. 최원준이 2개, 김도영이 5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마음 같지 않은 공격에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공-수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소크라테스가 지난 주 화끈한 홈런 3개로 7타점을 올리는 등 중심 타선의 움직임이 좋은 만큼 최원준과 김도영이 실수는 빨리 잊고 자신감 있는 승부로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드래곤즈, 김천상무 꺾고 7위 '점프'

K리그2 하남 멀티플 2-1 승리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선두' 김천상무를 꺾고 7위에 자리했다. 전남은 지난 20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K리그2 2023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하남의 멀티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1위 김천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더한 전남은 올 시즌 전적이 11승 4무 10패(승점 37)가 되면서 7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하남이 주인공이었다. 전반 17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하남이 머리로 골을 만들었다. 전반 16분 발디비아가 원발로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김천상무 골키퍼 김준홍의 손에 막혔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발디비아가 키커로 나서 오른쪽에서 공을 띄웠다. 뒤에서 달려든 하남이 헤더를 시도했고, 골대 상단 맞은 공이 그대로 골문 안에 떨어지면서 선제골이 기록됐다. 후반 10분에도 하남이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오른쪽에서 플라나가 넘겨준 공을 받은 하남이 박스 안으로 진입한 뒤 골키퍼와 마주했다. 하남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공을 띄우면서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다. 하남은 시즌 6·7호골을 연달아 넘으면서 멀티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후반 23분 김천상무 강현목에게 실점은 기록했지만 리드를 내주지 않고 2-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앞선 26라운드 부산원정에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0-1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던 전남은 1위 김천상무를 상대로 승점 사냥을 재개했다. 전남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으로 가서 승점 2점 차로 5위에 자리한 FC안양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류현진 폼 미쳤다”

14이닝 연속 비자책점 호투...구단·현지 언론 극찬

토론토 10-3 승리 이끌어

인생 세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만 36세의 투수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3경기 연속 비자책점 호투를 이어가자 소속 팀과 현지 매체, 관계자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토론토 구단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경기에서 5이닝 2실점(비자책점) 4피안타 1볼넷 7탈삼진으로 팀의 10-3 승리를 이끈 류현진을 아낌없이 칭찬했다. 토론토는 경기 직후 구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류현진의 투구 사진과 탈삼진 영상을 편집해 올리면서 류현진의 별명인 '몬스터'와 거장을 뜻하는 '마스터클래스'를 붙여 소개했다. 이어 한글로 '류현진 폼 미쳤다'라며 태극기를 표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주변에선 류현진의 부활 전망을 낮게 점쳤으나 그는 전성기 못지않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언론과 관계자들도 류현진을 극찬했다. MLB닷컴은 "이날 경기는 류현진의 최고 기량이 어느 수준인지 상기시켰다"라며 "류현진은 '와우'라고 감탄할 만한 강한 공을 던지지 않았지만, 영리한 투구로 상대 타선을 제압했다"고 했다. 이어 "류현진은 타자의 스윙과 생각을 잘 읽어내는 투수라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타자들에게 특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류현진이 신시내티의 '괴물 신인' 엘리 데 라 크루스를 삼진 처리한 장면을 예로 들었다. MLB닷컴은 "류현진은 크루스를 상대로 (매우 느린) 시속 66마일(약 106km), 67마일(108km) 커브를 던져 삼진으로 잡았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부상 후유증 없이 최고의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 복귀 후 첫 경기인 이달 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5이닝 4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지만, 8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에서 4이닝 무실점, 14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5이닝 2실점(비자책점)으로 활약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날도 비자책 행진을 이어가며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2.57에서 1.89로 끌어내렸다. 류현진은 선수 인생에서 세 번이나 왼쪽 팔꿈치에 칼을 들었다. 인천 동산고 2학년이던 2004년 4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고, 2016년 9월엔 왼쪽 팔꿈치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자 수술대에 올랐다.

스포츠넷은 "류현진의 투구는 의심할 필요 없이 이날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라며 "수술 후 가장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다"고 했다. 캐나다 지역지 토론토 스타의 마이크 윌너 기사는 "류현진은 최근 14이닝 연속 자책점 없이 호투하고 있다"라며 "14개월 이상 재결한 선수가 이렇게 좋은 제구력과 구위를 펼치는 것이 놀랍다. 보통 수술을 받은 선수들은 제구력이 가장 늦게 회복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신시내티 지역지 인콰이어러의 찰리 골드스미스 기자 역시 류현진의 투구 내용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류현진은 시속 70마일대(약 110km) 커브를 던져 신시내티 타자들을 제압했다"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